

# 김형실 감독의 쓴소리 “기초부터 다시...싸움닭 만들 것”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김형실(70) 광주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지금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컵대회)에서 지난 시즌 V리그에서 약점으로 지적됐던 서브·리시브 불안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KGC인삼공사전에서는 고의정에게 서브 에이스 7개를 헌납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의정이 리시브 약점을 간파하고 집요하게 공격했음에도 페퍼의 대응은 무력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컵대회에서 리시브 효율 18.52%로 최하위다. 6위 IBK기업은행(25.17%)과 격차도 꽤 나고, 1위 도교공사(51.88%)에는 3분지 1 수준이다.

공격의 시작인 서브도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서브 득점은 세트당 0.500개로 7개 구단 중 가장 적다. 1위 도교공사의 서브 득점은 세트당 1.857개다. 서브가 밋밋하다 보니 상대의 공격은 상대적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

페퍼스, 순천 컵대회 무력한 경기 “서브·리시브 너무 약해 불안”

리시브 효율 18.52%로 최하위 서브 득점 세트당 0.500개 최저 한세트도 못따고 1·2차전 연패

저조한 공·수 데이터는 승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 16일 컵대회 예선 B조 2차전에서 KGC인삼공사에 세트 스코어 0-3(18-25 15-25 20-25)으로 완패했다. 지난 14일에도 한국도로공사에 0-3으로 패한 페퍼저축은행은 18일 현대건설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준결승행 진출이 좌절됐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김형실 감독의 실망감이

쳤다. 일본 전훈을 바탕으로 팀의 전력을 다졌고 이번 대회에서 변화가 드러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수가 규정에 묶여 이번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완전체가 아니었음에도 연습한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 것도 사실.

김 감독은 “서브와 서브 리시브 모두 우리가 가장 약하다”며 “배짱 있는 서브와 리시브가 필요하다. 기본기 훈련부터 다시 하고, 선수들을 싸움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후 처음으로 컵대회에 출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 V리그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성적은 나지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만큼은 최고”라고 선수들을 다독였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두 경기를 치른 뒤 “지금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지 모르겠다. 자꾸 패하니까, 자신감만 잃는다”고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세터 이고은도 팀

에 활약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직은 고전하고 있다.

김형실 감독은 “이고은은 경험이 있는 세터고, 과감한 플레이를 한다”라며 개인 기량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우리 팀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팀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고은은 ‘빠른 공격’만 추구한다. 팀이 안정되려면 이고은이 팀 동료들에게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2023 V리그는 10월에 개막한다. “기초부터 다시”를 외친 김형실 감독이 남은 2개월 동안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2021년 컵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2021-2022시즌 V리그에 뛰어 들었다.

코로나19 여파로 6라운드 초반에 조기 종료한 V리그 정규리그에서 페퍼저축은행은 3승 28패 승점 11로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배구연맹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한 1~5라운드 성적은 3승 27패 승점 11이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실 감독

## 문흥중 배구 전국대회 준우승...광주 배구 황금시대 예고

평균 신장 187cm 체격조건 좋아 3학년 7명 전자공고 진학 예정

광주 문흥중학교 배구부가 아쉽게 ‘2022 춘계전국중고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중고배구대회’에 이어 2연속 준우승이다.

문흥중은 지난 16일 육전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16세 이하부 결승전에서 금호중(경북 영천)에 세트스코어 0-2(21-25, 16-25)로 패했다.

문흥중은 전국대회 우승권 전력을 구축한 탄탄한 팀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 배구계가 문흥중학교의 성장을 반기고 있다.

광주 남자배구는 문정초-문흥중-전자공고-조선대-비오신코리아로 이어지는 초등부터 실업팀까지 연계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광주 문흥중의 상승세를 이끈 3학년 7명이 모두 전자공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 광주배구의 황금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문흥중의 성장에는 백인화 교장과 박병희 감독, 최민국 코치, 선수들의 힘이 자양분이다.

이들은 여름방학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맹훈련으로 매일 기량을 갈고닦았다. 오후 7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야간훈련까지 소화하며 조직력 다졌다.

결과 광주 문흥중은 평균 신장 187cm로 뛰어난 신체조건과 함께 기술적인 능력이 향상,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한태웅



광주 문흥중학교 배구부.

(188cm·3년)과 김강별(178cm·3년)을 극대화시킨 더 블 세터 체제를 구축, 변칙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쉽게 허물어트렸다.

실제로 광주 문흥중은 조별예선부터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다.

첫 경기에서 만난 인화사대부중을 세트스코어 2-0(25-20 28-26)으로 몰리친 뒤 금호중을 세트스코어 2-0(25-22 25-18)으로 눌렀다. 이후 본오중을 세트스코어 2-0(25-14 25-19)으로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광주 문흥중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8강에서 만난 경북사대부설중을 세트스코어 2-0(25-16 25-11)으로 승리했고, 4강전에서는 제천중과의 치열

한 접전 끝에 세트스코어 2-1(23-25 25-21 15-10) 역전승을 거뒀다.

문흥중은 내진감에 우승 도전에 나섰으나 체력저하에 따른 리시브 불안 등으로 2위에 머물렀다.

팀을 이끌고 있는 서재현(3년)이 레프트상, 김유찬(3년)이 센터상, 박현승(3년)이 공격상을 수상했다.

박병희 광주 문흥중 감독은 “학교의 높은 관심과 지원, 선수단의 하나 된 의지 등이 무척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오는 9월 단양군에서 열리는 ‘제33회 CBS배 전국 중고배구대회’에서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세리나 윌리엄스가 17일 미국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앤드 서던오픈에서 라두카누를 상대로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테니스 여제’ 윌리엄스 “아~세월이여”

서던오픈서 라두카누에 0-2 완패 29일 개막 US오픈 끝으로 은퇴

은퇴를 앞둔 세리나 윌리엄스(61위·미국)가 ‘떠오르는 신성’ 에마 라두카누(13위·영국)에게 완패했다.

윌리엄스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웨스턴 앤드 서던오픈(총상금 252만7250 달러) 대회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라두카누에 0-2(4-6 0-6)로 졌다.

이날 경기는 1990년대부터 20년 넘게 여자 테니스를 평정했던 윌리엄스와 2002년생 신예 라두카누의 맞대결로 팬들의 관심이 컸다.

특히 윌리엄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하는

메이저 대회 US오픈을 끝으로 은퇴할 예정이고, 라두카누는 지난해 US오픈 우승자여서 US오픈을 앞두고 성사된 둘의 경기는 개막 전부터 이번 대회의 ‘메인 이벤트’로 부각됐다.

그러나 경기는 불과 1시간 5분 만에 라두카누의 완승으로 끝났다.

서브 에이스 7-5, 공격 성공 횟수 19-14로 윌리엄스가 더 많았으나 더블폴트 4-0, 실책 19-1 등 안장감에서 라두카누가 우위를 보였다.

둘의 나이를 비교하면 1981년생 윌리엄스가 21살 더 많다.

라두카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윌리엄스와 처음 경기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윌리엄스의 경기를 보며 자랐고, 나이 차이도 큰데 이렇게 함께 경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도쿄 금’ 제이컵스 유럽육상선수권 100m 우승

여자 100m에선 독일 루켄캠퍼 0.005초 차로 금메달

허벅지 통증 탓에 고전하던 러몬트 마르셀 제이컵스(28·이탈리아)가 유럽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챔피언에 오르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제이컵스는 17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2022 유럽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95의 대회 타이 기록으로 우승했다.

2018년 베를린대회에서 9초95의 유럽선수권 신기록으로 우승했던 자넬 휴스(27·영국)가 9초99로 2위에 올랐고, 예레미야 아수(21·영국)가 10초13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경기 뒤 제이컵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리 부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다. 오늘도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레이스가 아니었다”며 “그래도 도쿄올림픽에 이어 유럽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땀다. 이제 남은 건, 세계선수권 금메달 뿐”이라고 말했다.

제이컵스는 지난해 8월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프린터’로 부상했다.

‘황제’ 우사인 볼트(36·자메이카)가 은퇴한 후 처음 열린 올림픽에서 제이컵스는 100m와 400m

계주 우승을 차지했다.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제이컵스는 이탈리아 언론에서조차 메달 후보로 거론하지 않았던 스프린터였다.

그러나 제이컵스는 2021년 8월 1일 일본 도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80으로 우승했다.

여자 100m 결선에서는 지나 루켄캠퍼(26·독일)가 0.005초 차로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루켄캠퍼와 무전기 캄분지(30·스위스)의 공식 기록은 10초99로 같았지만, 1천분의 1초로 측정된 기록에서는 1, 2위가 같았다. 루켄캠퍼는 10초984, 캄분지는 10초989에 레이스를 마쳤다. 결선을 통과하며 넘어져 왼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루켄캠퍼는 순위를 확인한 뒤 포효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헌트
- 2관 한산: 용의 출현
- 3관 비상선언
- 4관 놀, 미니언즈2
- 5관 놀, 바다 탐험대 옥토포넛: 탐험선 대작전
- 6관 헌트
- 9관 헌트, 극장판 살아남기 시리즈: 인체에서 살아남기
- 7관 씨네캐슬 놀, 탐간: 매버릭, 미니언즈2, DC 리그 오브 슈퍼-팻
- 8관 씨네캐슬 한산: 용의 출현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2022.08.23.(화) 장소: 북구문화센터 문의: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광주 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 8372